



여성의 가족‘신문’

곱디고운 순백의 구름조차
시샘을 하는
어여쁜 여신(女神)의 날들이
시간여행을 타고
하염없이 예쁘게 걸어 나온다

은백의 공주 옷 입은 채로
산고의 아픔을 넘어
지천명(知天命)이 돼도 아빠의 하느님
아스라이 넘실대는 사랑
그리고 자애의 얼굴
여성이라는 이름에 걸린다

세월의 뿌연 연기를 마셔 봄어댈 때
모진 편견이 아프게 하여도
만물이 소생하는 날
으레히
모정의 추억을 타고
더 강인한 공주의 옷을 입는다

동장군 엄동설한 생명의 나무
담쟁이 덩굴로 타고 또 넘어
종횡무진
아들 딸 짐을 진 채로
하늘까지 품을 사랑으로
드넓은 자애의 갑옷을 하염없이 쟁긴다

소녀의 울렁임
잊혀지지 않는 그림자
소년의 얼굴이 걸음걸음을 올 때
누구인가 한마음 안고 보니
선율을 탄 그리움이 파도처럼 퍼진다

시간이 진 새벽
멈춰버린 시간 사이사이로
포도송이 구름보다 깨끗한 순정
눈이 시린 파란 하늘보다 높은 모정
아날로그 아침에 흐른다

시간을 잡는 꽃 누구인가
시간의 향기까지 잡아 누구인가
활짝 피고 또 피어 그예 영원한
아버지의 여신
어느새 아침마다
특~소리를 잡고 있는 아날로그 꽃향기

글자 하나하나
풋풋한 부녀의 입에 걸리더니
이내 타임머신을 타고
어느새 엄마의 귓가로 들리는 소식들
또 어느새 할머니의 콧잔등에 앉은
손녀의 재롱 이야기들

부푼 시간을 타고 영근
함박꽃 같이 피어 오르는
공주의 소녀의 아내의 엄마의 할머니의
쉼 없이 주는 샘물에
잠들지 않는 글자들이 함께 살아 움직인다

스카이데일리는 여성의 가족입니다